

괴물들의 소동

신현득 엮음

서강출판사 / A5신 / 176면 / 2000원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옛날이야기 가운데 괴물이야기만 모아 엮은 책. 상상의 동물인 괴물은 괴상한 생김새를 하고서 놀랍게 쎈 힘으로 세상을 괴롭히지만,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 괴물을 쳐부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이다. '머리 아홉개 달린 괴물 도둑' '지렁이 임금 견훤' '우렁이 아가씨' '말하는 남생이' 등 15편의 괴물이야기가 실렸는데,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옹고 그림에 대한 판단력을 도와주고 있다. 부록에서는 뜻이 반대되는 한자-반의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국전래동화

손동인 엮음

대원사 / A5신 / 240면 / 2500원

오랜 세월을 걸쳐 말로 전해져 내려온 옛날이야기를 글로 엮은 책.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는 옛조상들의 생활과 풍습이 속속들이 담겨 있어 언제나 구수하고 그리운데 이책에 모두 21편이 수록돼 있다. 호랑이에게 엄마를 잃고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 해님과 달님이 된 오누이이야기, 목욕하는 선녀의 옷을 감추어 선녀를 아내로 맞이한 나무꾼이야기, 꽃감을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알고 겁먹은 호랑이의 어리석은 이야기, 흑 떼러 도개비소굴에 갔다가 흑 불인 욕심장이이야기 등.

수수께끼 러브레터 사건

나까다 게이코 지음 / 최규남 옮김

문공사 / A5신 / 182면 / 2000원

일벌국민학교 5학년 교실에서 연애편지로 벌어진 소동을 그린 명랑소설. 반장인 한구슬은 다른 아이들이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쓰레기버리는 일을 두려워 하자 직접 쓰레기를 버린다. 어느날 쓰레기 중에서 구슬이 앞으로 보낸 연애편지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쓴 주인공을 찾으려 한다. 또하나의 사건은 '의적당근'이라는 이름으로 정체불명의 아이가 보내는 편지가 학교 전체에 알려져 있는 점. 이 두사람의 정체를 밝히려는 구슬과 구슬의 단짝친구 소라의 추적과 계속되는 사건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배꼽이 빠졌네

박영식 지음

백수사 / A5신 / 164면 / 2700원

어린이만의 맑고 투명한 감성과 기발한 재치가 어우러진 폰트집. 상식적으로는 생각해내기 어려운 기발한 유모어가 가득 담겨 있다. "지리시간에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의 중심지에 있는 대전직할시를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재빨리 일어서서 대답했다. 그것은 때가 낀 손가락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우회적인 풍자와 어린이들의 정서 세계를 보여주는 이 폰트집에는 이규경선생님의 재미있는 그림이 곁들여져 있어 한바탕 웃음을 자아낸다.



재미있는 종이접기

편집국 엮음

금하출판 / B6 / 220면 / 1500원

종이를 접어서 여러가지 동물이나 사물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 책. 접어서 금을 만들기, 자르기, 뒤집기, 잡아당기기, 밀어넣기 등 간단한 방법으로 모양을 만드는 기초적인 원리를 자세한 그림과 함께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비행기·보트·로켓접기로부터 동물·새·꽃집기, 상자나 꽃병같은 장식물·소품 접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접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접는 방법은 재미있는 놀이법이면서도 깊고 치밀하게 사고해야 하기 때문에 지능을 길러주는 효과가 있다.

햇빛은 땅 속에도

이준연 지음

아이큐박스 / A5신 / 240면 / 2800원

햇빛은 땅속에도 비치는 것처럼 도시만이 아니라 시골에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있음을 일러주는 창작동화. 도시생활과 시골생활을 모두 보여주는 이 동화는 어린이들이 시골생활에도 꿈을 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다고 작가는 말한다. 솔매산아래 50호가 넘는 솔매마을은 해가 갈수록 빈집이 늘고, 봄이 오면 밤중에 마을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 남수의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남수남매를 남기고 떠나버린 뒤 소식이 없다. 어느날 마음이 심란한 남수 앞에 3년전 서울로 떠났던 인철이 나타나 서울생활을 이야기 해 주는데…….

한국 명시 감상

홍윤기 지음

예림당 / A6신 / 134면 / 2500원

우리나라 현대 시인들의 좋은 시들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책. 이은상, 박재삼, 신경림, 이상, 유치환, 김현승, 이육사, 조병화 등 이름난 시인들의 96년의 시를 담았다. 어린이들이 동시뿐 아니라 시를 즐겨 읽을 수 있게 쉬운 말로 시를 소개하면서 시인들에 대한 지식을 곁들였고 시인이 그 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를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시를 감상하는 방법을 일러줌으로써 시와의 친근감을 갖도록 엮은 이 책은 국민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꽃벌

김관식 지음

동화문화사 / A5 / 152면 / 2500원

83년 「토끼발자국」을 발간한지 7년만에 내놓은 작가의 두번째 동시집. 7부로 나누어 90편의 동시를 담은 이 시집은 사물을 보며 느끼는 신비함과 삶에 대한 따뜻한 태도를 노래하고 있다. 오월 보리밭에는 / 귀여운 아기바람의 / 발자국을 볼 수 있어요. 바람이 / 아장아장 / 걸어들 때마다 / 뚜렷이 새겨지는 / 파아란 발자국. 눈깜짝할 사이 / 누가 지워 놓았을까? / 발자국이 없어졌어요. -「오월 보리밭에는」 중